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까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세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죄를 미루지 않고 회개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아버지여 구하오니(은혜의 찬양 220장)

- 1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 주소서
우리 맘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 2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제 우리 마음 합치세
주 예수 그 이름 온 땅 위에 높이 들리라
만유의 주님 온 세상 보도록

[후렴]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2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찬송가 79장)

- 1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 2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숨씨 노래하도다
- 3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 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 4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후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말씀 읽기 사사기 20:17-35

- 17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사십만 명이니 다 전사라
- 18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 19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 20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 21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이만 이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 22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 23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 24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 25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 팔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 26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엘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 27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 28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하시니라
- 29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 30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 31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꺾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엘로 올라가는 길이면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삼십 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 32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쫓아내자 하고
- 33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쏠아져 나왔더라

- 34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 3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이만 오천백 명을 죽었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본문 배경

레위 사람의 첩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무참히 능욕당하고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첩의 시체를 열두 토막 내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보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는 충격에 휩싸였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군사의 수는 40만 명이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 레위 사람에게 사건의 경위를 듣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이 일에 연루된 불량배들을 넘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요구를 거부하고, 그들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군사는 기브아 군인 칠백 명과 베냐민 자손 이만 육천 명이었습니다. 4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에게 속한 성읍인 기브아를 끝까지 감싼 것입니다.(삿 20:14)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승리가 예상되었지만, 두 차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자손에게 패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베엘로 올라가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은 베냐민 자손을 넘겨줄 것이라 말씀합니다.(삿 20:28)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세 번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베냐민을 치셨고, 이날 이스라엘 자손이 죽인 베냐민 자손의 수는 이만 오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 번의 패배 후,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자손보다 많은 군사를 가졌지만, 두 번의 전쟁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그러나 베엘에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냐민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사의 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결코 죄를 지켜보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다스리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 관찰

1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앞두고 무엇을 했나요?(18절)

답 하나님께 나아가 뜻을 여쭙고 지시를 구했습니다.

해설 이스라엘 백성은 큰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누구를 앞세워야 할지 여쭙니다. 이는 겉으로 보면 매우 신앙적인 모습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올바른 시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묻기는 했지만, 전쟁의 방향과 방식은 이미 자신들 안에서 결정해 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분노와 정의감에 하나님을 동의시키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싸워도 될까요?”가 아니라 “누가 먼저 나가야 합니까?”를 묻습니다. 즉, 싸움 자체는 이미 확정된 상태였고 하나님께는 순서와 방법만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신앙 이라기보다 자기 계획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신앙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과 하나님의 뜻 앞에 멈추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질문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2 하나님은 언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나요?(28절)

답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해설 이스라엘은 첫 번째 패배 후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보다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23절) 두 번째 패배 이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베엘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26절)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승리를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바로 서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과 자기 확신이 깨어질 때까지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시다가 그들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내일은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패배를 통해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루셨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결국 승리는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말씀 적용

1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묻고도 내 생각대로 행동한 적은 없었는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2 우리 가정은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나요? 기도로 먼저 나아가는 가정이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해 보세요.

4-3 모든 나라 가운데서

시편 96편 10절

♩ = 72

작곡 송세라

F C/E Bb/D C F C/E
모든 나 라 - 가운 데 서 - 이 르 기 를 - 여 호 와 께 서 - 다 스 리 시 니 -

4 Bb/D C6 C Bb F/A
세 계 가 - 굳 게 서 고 - 흔 들 리 지 않 - 으 리 라 - 그 가

6 Gm7 F Bb F/A
만 민 을 - 공 평 하 게 - 심 판 하 시 리 - 라 할 지

8 C7 F Bb C7 Gm7 F
로 다 시 편 구 십 육 편 십 절 말 씀 아 멘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눈앞의 결과와 빠른 해결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앞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문제 앞에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순종의 길이 때로는 느리고 어려워 보여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끝까지 따르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